

성경과 문화
안명준교수(평택대)

구약과 기독교문화 과 신약과 기독교문화

문화와 인간

문화적 존재로서 인간의 모든 활동을 성경적-신학적-문화적 해석을 읽어보기

문화명령인가 일반은총인가(창1)

두가지를 모두 조화롭게 이해하여 기독교문화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일반은총인(카이퍼, 보편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의 확장성,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나라의 혼합적 모습이 약점)

문화명령인(스킬더, 제한적, 그리스도 중심, 단점으로 이원론적, 변증법적, 두 왕국의 철저한 분리)

*보편적 인류적 문제에서는 일반은총에 대한 문화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문화를 바르게 세우는데 적극적인 문화의 사역으로는 문화명령의 관점이 필요하다.

언어해석학적 관점에서 성경의 문화관 정립

창세기는 언어가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 사용되었다. 인간의 삶의 방식에서 결정적 문화의 도구임을 보여준다. 언어와 인간의 역사의 관계를 살펴본다.

언어의 권위(1:1- 말씀으로 창조, 이르시대, 그대로 되니라), 언어의 축복(1: 28), 언어의 창의적 사용(2:19), 언어의 타락적 왜곡(3:2), 언어의 반란(11), 언어의 축복적 약속(12), 언어의 속임(12:11, 누이로), 언어의 아들(이삭), 언어의 축복(27, 이삭이 야곱축복), 언어의 해석(40, 꿈해석), 언어의 치료(50).

언어의 인격화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신약은 언어의 주인이신 그 언어(말씀)이신 예수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모든 언어적 활동의 완성됨, 구약은 언어의 예표적 사용이며 신약의 그 언어의 성취이다. 말씀으로 치료(나사로, 기적, 이적)

그는 알파요 오메가이다. 시작이며 완성자이시다. 태초에 말씀하신 분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말씀의 심판주와 전능자로 오실 것이다(계 1:8).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문화의 주체로서 인간의 존재의 목적

문화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

타락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수행이었지만

타락후 하나님과 사탄의 영향속에서 문화적 수행으로 인류의 파탄을 보게된다.

하나님보다 악의 영향으로 악한 문화가 융성할 때 심판이 있었다. 노아홍수, 족장시대,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타락한 문화를 심판), 이스라엘의 역사(우상숭배)

1: 26 -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그리고 여성존중의 문화, 비폭력문화, 모든 인류는 하나.

형상론에 따른 기독교 문화의 주체인 인간의 삶의 기초가 세워져야 된다.

1: 26,27,28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한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dominion,1:26,28), 정복하라(28), 다스리고 지키라,(2:15)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것은 모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1:26)라고 하신 말씀의 빛에서 이해 할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개념은 이 세상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확인 하는 것이므로 '인류의 대현장' 이라고 불리워져 왔다.

인간의 문화적 사명이 분명이 나타난다.

27- 남자와 여자, 동성애 문화의 비성경적 근거가 처음 나온다.

1: 1 천지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하나님은 창조자, 소유자. 주인이며 소유자). 인간은 피조물, 하나님의 소유물, 인간존재와 인간이 소유한 모든 존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천지를(대상인 자연, 피조물, 세계만물) 전 존재의 대상이 하나님이 소유재산이다. 인간이 소유의 주인이 아니다.

창조하시니라(하나님의 역사, 개입, 활동.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의 신성적 문화적 사역을 하셨다. 인류의 활동에서 인간이 주인처럼 행동하지 말라. 전 인류의 활동의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과 주권에의하여 움직인다. 시작하셨고 현재도 활동하시며 미래를 완성하시는 분이시다. 창조사역은 과거로 끝나지 않고 현재와 미래까지 전 포괄적인 활동의 영역이다.

1: 2-25 창조의 과정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창조후에 안식, 7일 기록하게 함.

자연과 대립적 관계로 문화를 이해하지 말 것.

자연의 질서를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성경의 문화이다.

문화위에 있는 계시(하나님의 명령)

1: 26-31,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문화적 행동을 수행하는 모습
계시와 말씀은 항상 문화에 앞서 문화를 인도하고 문화를 감시하여야 한다.

2: 8 에덴창설, 인간을 두시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모든 나무는 먹지만 선악과 금지

인간에게는 피조물에 대한 문화적 책임이 있다. 인간은 피조계를 개발하고, 하나님의 창조행위의 주기와 양상, 그리고 그 질서와 조화되는 구조를 세우도록 부름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서 창조주의 허락하에 피조물을 개발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다.

정복은 자연을 대항해서 싸워서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의 승전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
타락후에 청지기적 책임의 회피와 이기적 탐욕으로 하나님의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
믿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올바르게 참여해야 한다.

정복(카바쉬)이라는 단어와 의미 -

정복하라(카바쉬)는 '발로 밟다'(미 7:19), '복종케 하다'(민 32:22)란 뜻으로 땅을 자신의 것으로 취급하여 마음대로 행해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좇아 땅 속에 포함된 광대한 자원을 개발하며 유용하게 이용하라는 문화 명령(Cultural Mandate)이다.

창 2, 문화적 언어적 능력보여주고, 문화적 사명- 관리와 노동
에덴 동산- 놀고 먹는 곳이 아니다. 노동과 땀과 사명적 장소이다.

경작 5,

다스리며 지케게 하라 15

18- 아담이 이름을 지으시고 - 동물과 새들, 여자라는 이름

타락과 문화 창3

하와 - 해산의 고통, 좁은 산도, 큰 뇌(25%, 보통 영장류 3배크기)

해산의 고통은 땅에 충만한 말씀에 대조적 모습으로 충만을 위해 고통감수

아담 - 노동의 고통- 감사와 기쁨의 활동이 아닌 저주적 고통, 그리스도 안에서 소명적 활동

타락으로 문화적 활동의 급변, 환경의 변화와 인간의 활동에 변화가 옴.

다스리고, 정복하는데 있어서 대조적으로 왜곡된 인간의 폭력성과 자연의 파괴

타락에서 홍수까지는 문화적 다양성

가인과 아벨

가인의 자손은 왕성한 문화적 활동을 하였으나 죄악의 세상을 만들어 감(6:5)
문화적 부흥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갖지 못하면 결국 부패와 파괴로 마감하게된다.
이런 모습이 노아시대와 바벨탑에서 나타났다.

야발- 욱축

유발 - 수금과 통소 연주자

두발가인 날카로운 기계 제작자

라멕 - 은유를 사용하는

자크 엘룰- 기술문명 비판,

아담의 후손인 세싱, 에노스, 자녀낳고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는 단순한 기록.

문화적 활동에 대한 것이 없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예배 생활

추측: 사람들의 문화적 활동이 결국 타락을 촉발하는 도구로 쓰인 것 같다. 노아홍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예배적 삶의 모습이 대조적이며 구원으로 가는 길.

홍수후

바벨탑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타락한 인간들의 기술혁명을 통한 신을 향한 반항적 언어적 선언이다. 일반은총과 문화사명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본연의 목적인 흠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방향으로 강제적으로 나가게된다.

바벨탑 사건, 한 언어에서 심판으로 언어의 혼동으로 다 언어로.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에 저항하고 한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반란한다.

사탄이 뱀을 통한 반란과 하나의 언어를 통한 탑을 쌓는 기술문명에서 하나님께 반란의 모습은 동일하다. 예수님의 시험에서 높은 곳에서 사탄이 유혹의 장면도 유사하다.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이 앉는 것은 죄, 타락, 심판이 임하게 된다.

바벨탑의 주인이 인간이라고 선언하는 언어적-문화적 교만은 심판으로 이어진다. 언어의 심판으로 혼란과 무질서로 . 하나님의 명령처럼 다시 흠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문화의 발전과 목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비교가 아니라, 인간 삶의 축복된 상태와 창조된 지구아 같은 세계를 잘 보살피고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개발하고 발전시키 신의 지혜와 능력에 도전하고 인간의 지혜와 기술을 자랑하고 교만의 탑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자크 엘룰- <도시의 의미>

하나님은 에덴동산을 창조하셨고, 낙원에서 추방된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최초의 도시인 가인은 살인자로 거절감과 죄책감 속에서 도망자이자 유리하는 자로 도시를 건설했다. 도시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 유리 방향함과 영원한 집없는 떠돌이 삶을 상징하며 그러한 삶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도덕적 타락은 바벨탑 사건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상징하고 있다.

프랑스의 신학자이자, 사회학자, 철학자로서 현대 문명비평가이며 기독교적 최고의 지성자크 엘룰은 이 책을 통해서 현대를 자크엘룰은 이 책에서 도시의 의미를 명백하게. 그리

고 예언적으로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도시는 언제나, 즉 최초의 도시인 에녹(가인의 성)에서 부터 현대의 도시들(뉴욕, 파리, 런던, 서울 동경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하나님대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실현하는 장소라고 한다. 도시는 인간으로 에워싸여 있으며, 인간이 주인이 되고 다시는 객체가 되지 않기 위해 인간 이외의 어떠한 다른 힘의 개입도 배제시키는 곳이다.

그야말로 도시란 인간 스스로를 자연의 주인으로 선언하는 장소인 셈이다. '나는 신을 죽였다'라고 말한 니체의 형이상학적 가능성을 지닌 곳도 오직 도시문명 속에서 전제된 도시적 철학 조형물이다. 엘룰은 이 책을 통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인류를 향해 그들이 살고있는 도시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며 그 터 위에서 인류의 소망인 새 예루살렘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 예언적으로 밝히고 있다.**¹⁾

도시는 보이는 세력과 보이는 행복을 추구하여 만들어진 동산이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방어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또 다른 속제를 가지게되었다.

오늘날 바이러스의 침공으로 도시가 황폐화되어가는 모습에서 인간의 무능함을 다시한번 깨닫게된다.

아브라함의 생애와 기독교 세계관 그리고 그의 문화관

계시와 타락한 문화의 대결

속임 - 살기위해 2번, 부정직의 모습, 하나님으로부터 배교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 이집트 창 12, 파라오로부터 동물을 얻음, 재앙을 내림

창 20에서 그후에 다시 한번 그랄에서 아비멜렉 왕에게 두려워하는 모습에서

그의 생존전략 - 자신의 생존을 위해 아내를 판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경외를 무시했다. 사례도 동참하여 자신을 속임

세계관 -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을 두려워하고 왕의 권위를 두려워하다. 인간들이 하나 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핑계를 대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졌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모습

문화관 - 아내를 언제든지 넘기는 윤리관습.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인식못하는 문화적 삶을 살 았다. 상황윤리적인 문화관을 보여준다.

적용 - 인간의 강함이 우리로 두렵게 한다. 살기위해 속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롯과 아브라함은 구원의 길로 살아간다.

소돔과 고모라- 타락한 문화공동체의 운명

아브라함의 세계관과 문화관의 수준을 보게된다. 연약한 인간, 믿음의 바닥에 있던 그의 모습에서 세상 문화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게된다.

하나님보다는 세상문화의 힘을 더 두려워하였다. 세상으로 부터오는 죽음의 두려움에 눌려서 영적인 죽음과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보지못한 것이다.

롯의 세계관과 문화관

1) http://mall.duranno.com/detail/detail.asp?itm_num=2091700011

아브라함은 롯보다도 신앙적 성숙과 결단을 보여준다. 더욱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단계로 들어섰다.

롯은 신앙적으로 가정을 바르게 이끌지 못하였다. 소돔의 문화에 온 가족이 함몰된 모습에서 자신만 겨우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에서 구출되는 긴장의 모습을 본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본다.

창 19, 세상의 죄악의 극치를 보여준다. 소돔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사자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무서운 죄를 보여준다. 사탄의 공격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준다, 종말론적인 죄의 심판을 본다.

소돔사람들이 자신들이 심판당하는 것에 반항하는 모습을 본다.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죄악의 모습을 폭로한다.

롯은 처음부터 이기적인 세상적 관점에서 결정하는 모습. 양보보다는 자신이 유익한 것에 판단하는 이기적 모습, 보암직도하고 탐스럽기도 한 선악과를 상기시킨다. 이미 소돔에 가기전에 그의 마음에서 짙이 나는 죄의 움트름을 볼 수 있다. 마지막 그의 아내의 죽음은 신앙적으로 실패한 모습. 딸들도 기독교적 세계관의 실패와 문화적 패역을 보여준다.

마지막 인생도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관에 익숙하여 포도주를 마시고 딸들과 동침하는 실수 세속적 문화관에 물들었다.

계시와 타락한 문화생명체의 운명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경우

창조적 문화명령에 어긋나게 나갈 경우 - 즉 하나님은 문화를 빙자한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떠나게하는 이방종교의 문화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으셨다. 자신의 백성을 타락시키는 타락한 종교의 문화적 유산을 근절시켰다.

신명기 7장

하나님의 강한 멧세지- 생명공동체의 멸절을 명하신다. 문화공동체의 멸망

헛,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들을 진멸, 언약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말 것, 혼인말라. 이유는 그들이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하기 때문이었다. 올무가 되기 때문에 긍휼말고 진멸하라.

할 일 - 단 혈고 주상깨고 아세라목사 찢고 조각한 우상 불사르고,

그 이유가 - 이스라엘은 성민,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treasured possession),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7:13 하나님의 문화명령을 하시고 축복을 약속하신다.

하나님의 약속들

번성케,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소산과 곡식,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소와 양을 번식케. 짐승 생육, 질병방어 약속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문화에 점령되어 우상숭배를 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국가의 패망과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갔다. 세상문화-하나님을 거스리는-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결과는 인간의 고통과 심판을 보게한다.

* 문화속에 숨은 사탄의 전략- 하나님께 저항하는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한다. 이것은 타락한 세상의 올무 전략이다.

*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가증한 것- 금과 은으로 입힌 신상이나 우상조각 7:25

악함- 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멸망시킨 것이다. 신 9; 4

세상문화의 발전과 건설에 따르는 교만

신 8:11- 20 집짓고 풍부한 삶을 살되 하나님을 잊지 말라.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마음의 교만을 갖지 말라. 이것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고 하신다. 결국 문화적 융성과 풍부함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신다 (신 8:10)

성경은 교만을 엄격하게 교훈한다.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행세를 하는 것이다. 페르시아가 아테네에게 패한 첫 이유를 오만(Hybris)평가한다. (Hybris the Greeks - the "unforgivable sin

성경은 겸손을 말한다. 가나안의 정복은 이스라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신 13

선지자, 꿈꾸는 자의 이적과 기사

여호와를 배반케, 꺾어 하나님의 도를 떠나게 하는 것에 대한 강한 처벌을 명령

영적 신비적 활동에 대한 조심스런 관찰- 문화의 뒷면 숨겨진 악한 세력에 대한 경계심
그런 활동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유혹한다면 당연히 싸워야 한다.

신 15 돈과 채무

독촉말고 도움을 주라

신 16: 18-22 공의의 재판, 외모가 아니 뇌물아니라 공의로 재판하라

사사기와 기독교 문화

힘의 두려움과 죄의 잔혹함: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문화

왕이 없었다- 질서와 통합 그리고 명령체제가 없음- 개인의 자유를 마음껏 누림
개인의 무한한 자유를 인정하는 문화의 결과를 보여준다. 무질서한 사회의 패역상이다.

* 구약은 우상과 욕심 그리고 율법에 반하는 왜곡된 문화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인간의 문화는 타락되었으며 그 배후에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부패된 인본주의적 문화의 반향이 어떻게 심판받았으며 참된 문화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실현되는 목표.

죄와 타락 그리고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은 그 문화적 사명과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야 함에도 그 실패의 값비싼 교훈을 보여준다.